

이매뉴얼 월러스틴,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

조용주 20170780

수업 혹은 토론에서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할 때, 왜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단일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논의가 흘러가는지 궁금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그람시의 헤게모니보다 훨씬 거대하여 저항 그 자체를 내재한 부정적 의미-대척점의 이데올로기를 허락하지 않는- 단일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적 의미가 논의 속에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국지적인 카운터 이데올로기들-뉴딜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같은-이 등장하는 것이 모순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앞선 개념적 의미에 따르면 국지적 이데올로기들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만약 존재한다면 이야말로 카운터 이데올로기가 이데올로기를 잡아먹는 현상-알튀세르에 따르면 나타날 수 없는-의 반증 아닌가?

당시 시간 부족으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지 못하고 수업이 끝나버렸는데, 이메일로 여쭙볼 만큼 궁금하지는 않았던 것인지 까먹은 채로 지냈다. 그러던 중 월러스틴의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을 읽으며 나름의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옳은 방향의 독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얻은 답은 아래와 같았다. 현대 사회의 모든 구조, 체계적 산물은 자유주의에 기반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모든 이데올로기들의 뿌리로서 기능한다. 여전히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에 대한 혼용처럼 느껴지는 부분은 존재하지만, 자유주의라는 근현대 사회의 거대한 기반과도 같은 존재는 국지적 이데올로기들과 구분되는 단일 이데올로기와 그 작용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했다.

그리고 이 답은, 본 과제의 질문인 '왜 현대 사회과학은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과학의 몰락은, 그 기반인 자유주의의 몰락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거세와 포섭을 통해 팽창하다

자유주의는 어떻게 근현대 사회의 기초로서 자리잡을 수 있었을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비대해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거세와 포섭의 반복이다. 근대 사회의 보수주의와 급진주의 사이, 정치적으로 우세했던 (중도) 자유주의는 보수주의와 급진주의의 극단성을 소거하여 포섭한다. 이때 포섭은 결국 그 근원에 자유주의를 두는 것을 말한다. 즉, 포섭의 결과로서 보수주의와 급진주의는 모두 자유주의로부터 시작한 변종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보수주의와 급진주의의 거세는 자유주의에서 시작되었기에 자유주의를 해체시킬 수 없는, 위험 요소가 거세된 형식적 균형추의 등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자유주의는 수많은 균형추들을 만들어간다. 앞서 말했듯 이 과정은 거세와 포섭으로 이뤄지는데, 자유주의는 포섭의 대가로서 빵 대신 그 부스러기를 주기도, 미래에 빵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만을 주기도 한다. 즉 자유주의가 그 몸집을 불려감에 따라, 실질적 문제 혹은 요구의 해결이 없는 미봉책은 필연적으로 누적되는 것이다.

거세할 힘을 잃어가는 자유주의

문제는 수없는 거세와 수많은 포섭 속 미봉책을 통해 기만 받은 이들- 혹은 속으로부터 배제되어 거세될 필요조차 없는 이들이 함께 늘어간다는 점이다. 이렇듯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은 이들과 자유주의 체제 내부로부터 배제된 이들의 증가는 또 다른 위험 요소들을 만들어낸다. 문제는 거세와 포섭의 가능 여부이다. 앞서 밝혔듯, 자유주의의 거세 및 포섭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약속을 매개로 이뤄진다. 그러나 약속의 담보가 허상임을 깨달은 이들과는 약속이 불가능하다. 즉 위험요소의 거세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세 불가능한 위험요소라 분리되는 이들은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되는가? 자유주의로의 편입을 거부하고 자유주의 체제 전반에 대한 변혁을 일으키는가?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이미 자유주의 내에 포섭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유주의의 위기는 자유주의의 이상향의 붕괴일 뿐, 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자체로부터의 탈출이 아닌 것이다. 이상적으로 보이는 자유주의 질서의 붕괴 뒤엔 포장되지 않은 문제적 자유주의 사회만이 남을 뿐이다.

이같은 문제점은 사회과학의 측면에서 사유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탈출, 혹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붕괴 이후의 사회 재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는 사회과학에 있기 때문이다.

무너지는 자유주의 속 사회과학

그럼에도 현대 사회과학은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 근대 사회과학 역시 자유주의로부터 탄생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월러스틴에 따르면, 사회과학은 자유주의의 필요에 의해 탄생 혹은 의존적 성장을 이뤄왔다. 이 과정에서 사회과학은 합리성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철학적 면모를 분리해내는 데에 집중하거나 나뉘질 수 없는 분야를 나누는 등 과도한 전문화에 매몰된다. 이러한 분리와 배타, 전문화 등을 통해 정립된 사회과학의 체계는 이후 등장하는 반-자유주의적인 저항적 사회 이론들을 자유주의적 사회과학 체계 속으로 흡수한다. 이는 역시, 거세와 포섭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뤄진다.

이로 인해 자유주의에게 삼켜진, 혹은 자유주의로부터 탄생한 사회과학은 자유주의의 붕괴와 함께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뤄지는 사회과학적 사고와 이론들은 자유주의에서 벗어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용한 학문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회과학이 다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월러스틴은 단순히 비관적으로만 상황을 볼 필요는 없다고 밝힌다. 오히려 그가 제시한 사회과학의 미래와 전망에 있어 본인은 그가 앞서 제기한 절망적 상황 판단에 비해 조금은 당황스러울 정도의 낙관성을 느꼈다.

그는 앞으로 과학과 철학의 결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흥분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지나친 전문화에의 집착을 놓고 보다 넓은 시야에서 사회과학적 연구가 중요해지리라 이야기한다. 이는 세계체계 분석과 같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연구를 의미할 것이다. 또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회과학에의 도전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 이야기하기도 한다.

자유주의와 사회과학의 문제,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사실 본인은 위 같은 월러스틴의 해결책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가 제시한 다양한 전망과 대안이 어떻게 자유주의의 붕괴로부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잘 그려지지 않은 탓이다.

본인이 바라보는 현대 사회, 특히 한국 사회는 보다 비관적이다. 능력도, 자본도 없는 2030 남성들이 허상적 능력주의를 신봉하며 ‘진보적’이라 평가받는 사회 운동 전반에 적대감을 보이는 지금, 불평등이 당연한 것이며 평등적 분배 혹은 정책에 대한 요구 자체가 물염치한 행위로 불리는 지금, 온라인을 통한 무수한 배제가 가능한- 또 그 배제라는 행위를 통해 다양한 층위 속으로 본인을 포섭시킬 수 있는 지금, 사회 전체의 변혁은 너무도 먼 얘기로 들린다. 월러스틴이 강조한 자유주의 몰락 후의 탈출(혹은 재건) 전략보다도 현재 산적한 문제의 해결 전략이 시급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 역시 ‘당면한 문제는 해결했는지 몰라도 지속적 사회 변혁을 불러오지는 못한’ 역사의 반복 중 하나겠지만, 사회 자체의 변혁과 함께 혹은 그 이전에 이 같은 구체적 문제들의 해결 역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과 함께 감상을 마친다.